

# 240703(수) 증권사리포트

삼성바이오로직스

2Q24 Pre : 우호적 환율, 삼성바이오에피스 통한 호실적

[출처] 하나증권 박재경 애널리스트

2Q24 Pre: 우호적인 환율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통한 호실적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Q24 별도 기준 매출액 7,002억원(+9.9%YoY, +4.6%QoQ), 영업이익 2,453억원(-3.5%YoY, +5.4%QoQ, OPM 35.0%)으로 컨센서스 매출액 7,658억원, 영업이익 2,679억원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생산 스케줄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작년 하반기 대비 둔화된 매출을 기록하나, 우호적인 환율효과로 1분기 대비 매출액 성장이 전망된다. 연결 기준 실적은 매출액 9,742억원(+12.5%YoY, +2.9%QoQ), 영업이익 3,159억원(+24.7%YoY, +42.8%QoQ)으로 전망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실적은 스텔라라 시밀러 마일스톤 수령에 따라 매출액 4,486억원(+75.3%YoY, +42.8%QoQ), 영업이익 2,050억원(+389.4%YoY, +438.2%QoQ)으로 전망한다. PPA 상각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이나, 생산 일정 상 내부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4년 별도 기준 매출액은 3조 3,581억원(+14.3%YoY), 영업이익은 1조 3,402억원(+11.3%YoY, OPM 39.9%)로, 연결 기준 매출액은 4조 2,731억원(+15.7%YoY), 영업이익은 1조 2,864억원(+15.5%YoY, OPM 30.1%)로 전망한다. 우호적 환율 효과와 5공장 18만리터 설비 가동,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호실적으로 24년에도 실적 성장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Biosecure Act에 대한 기대와 우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장기적 방향성

최근 Biosecure Act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하원의 Rules Committee에서 Biosecure Act를 25년 NDAA(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최종 개정안에서 제외하며, 법안의 입법이 지연될 가능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Bloomberg 보도에서는 로비를 이유로 꼽았으며, Biosecure Act를 발의한 의원은 이는 절차적 문제로 결국 입법될 확률이 높다고 언급했다. 법안의 입법을 위해서는 하원 본회의 심의, 상원 심의, 대통령 서명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법안의 적용 범위 또한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다. 법안 원문에서는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대상은 미국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Medicare/Medicaid가 포함될 지에 따라 범위가 결정된다. 하지만 여러 이슈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Biosecure Act가 가져올 장기 방향성이다. 미국 정부는 22년 UVL(Unverified List), 바이든의 행정명령에 이어, 금번 Biosecure Act까지 중국 CMO에 대한 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CMO 비즈니스의 진입 장벽이 수주 레퍼런스일 정도로 신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중장기적 수혜가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950,000원 유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950,000원을 유지한다. 긍정적 실적 흐름에 더불어, 우호적인 산업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긍정적 투자 의견을 유지한다.

##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2,437.3	2,938.8	3,358.1	3,886.3
영업이익	968.1	1,204.2	1,340.2	1,639.8
세전이익	922.9	1,224.2	1,384.0	1,696.9
순이익	686.8	945.9	1,066.1	1,309.1
EPS	9,820	13,290	14,979	18,392
증감율	55.38	35.34	12.71	22.79
PER	83.60	57.19	48.53	39.53
PBR	8.01	6.57	5.56	4.88
EV/EBITDA	49.67	36.60	31.03	25.06
ROE	12.82	12.18	12.15	13.14
BPS	102,518	115,753	130,725	149,118
DPS	0	0	0	0





## 클리오

### 모범적인 성장

[출처] 키움증권 조소정 애널리스트

### 2Q: 성장 흐름 견조

클리오의 2분기 매출액은 940억원 (+16% YoY), 영업이익은 94억원 (+45% YoY, OPM 10%), 시장예상치에 부합할 전망이다. 국내외 채널의 매출 성장세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국내 매출은 600억원 (+13% YoY)을 기록할 전망이다. 채널별 YoY 성장률은 홈쇼핑 +20%, 온라인 +18%, H&B +13%를 기록할 전망이다. 홈쇼핑은 전용 상품 출시와 채널 편성 횟수 전년대비 증가, H&B는 기초 제품 판매 호조, 온라인은 버티컬 플랫폼 채널 프로모션과 전용 제품 출시 영향으로 성장을 이끌었다.

해외: 해외 매출은 377억원 (+36% YoY)을 기록했다. 국가별 YoY 성장률은 미국 +50%, 일본 +49%, 동남아 +15%, 중국 +14%를 기록할 전망이다. 미국은 청굴C 라인의 성장 모멘텀 지속, 일본은 오프라인 채널 성장, 동남아는 채널 확장, 중국은 전용 제품 출시 등 영향으로 성장세가 나타났다.

### 화장품 브랜드사 중 모범생

24년 연결 매출액은 4,000억원 (+21% YoY), 영업이익은 453억원 (+34% YoY, OPM 11.3%)을 기록할 전망이다. 국내외 미국은 기초 라인이, 일본은 색조와 오프라인 채널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

- 국내: 24년 국내 채널은 +15% YoY 성장할 전망이다. 기존 색조 라인의 실적이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초 제품 성장이 돋보일 전망이다. 국내 H&B에서 브랜드 구달과 더마토리의 성장성이 두드러지고, 온라인과 홈쇼핑에서는 전용 제품 출시로 성장 모멘텀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일본: 24년 일본 채널은 +25% YoY 성장할 전망이다. 오프라인 채널 중심 성장세가 돋보인다. 클리오 재팬 설립 이후 일본 채널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2분기에도 오프라인 마케팅 집중 전략이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향후 성장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

- 미국: 24년 미국 채널은 +40% 성장할 전망이다. 청굴C세럼 판매 호조, 카테고리 확장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 매출이 아마존 온라인 채널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외 B2B 채널도 점차 키워나갈 예정이다. 화장품 브랜드사 중 모범생이다. 중국 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미국/일본에 대한 우수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초 브랜드들이 좋은 성장성을 보이면서 브랜드 포트폴리오도 한층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이 기대되며, 투자의견 BUY를 유지한다

## 투자지표

(십억원, IFRS 연결)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272.5	330.6	400.0	456.0
영업이익	17.9	33.8	45.3	59.0
EBITDA	21.0	36.4	47.8	61.2
세전이익	15.7	36.1	48.8	62.6
순이익	10.1	27.3	39.4	48.8
지배주주지분순이익	10.1	27.7	39.4	48.8
EPS(원)	565	1,533	2,178	2,702
증감률(% YoY)	5.8	171.1	42.1	24.0
PER(배)	28.7	20.1	17.2	13.8
PBR(배)	1.54	2.60	2.75	2.36
EV/EBITDA(배)	9.5	11.8	10.7	7.6
영업이익률(%)	6.6	10.2	11.3	12.9
ROE(%)	5.7	13.7	17.1	18.4
순차입금비율(%)	-49.1	-59.5	-66.5	-73.2



빙그레

더울수록 더 빙그레

[출처] DS투자증권 장지혜 애널리스트

[업데이트]2분기 성수기 효과 기대되며 실적 성장 전망

24년 2분기 실적은 연결 기준 매출액 4,112억원(+6% YoY), 영업이익 518억원(+12% YoY, OPM 12.6%)으로 시장 기대치 부합 전망

내수는 빙과 성수기 효과와 냉장 품목군 수익성 개선 기조 유지, 마진이 높은 해외는 빙과와 냉장 수출 증가하며 수익성 개선 견인 전망

연결 법인은 해태는 국내 빙과 경쟁 완화되며 실적개선 기조 유지, 해외 판매 법인은 중국과 미국 중심으로 성장 전망

24년 연간 실적은 연결 기준 매출액 1조 4,553억원(+4%YoY), 영업이익 1,341억원(+20%YoY, OPM 9.2%)으로 실적 성장 전망

[투자포인트] 해외 SKU 확대 긍정적, 빙과 산업 가격 정상화와 여름 성수기 및 제로 모멘텀 기대

1) 해외 확대: 빙그레의 바나나맛 우유와 메로나의 글로벌 인기 긍정적. 특유의 과일맛과 K-콘텐츠에 등장하며 글로벌 시장 관심 증가

2) 시장 가격 정상화: 국내 아이스크림 플레이어 간 가격 경쟁 완화로 시장 가격 정상화 및 저수익 SKU 축소에 따른 실적 개선

3) 제로 제품 출시: 최근 저당 아이스크림 인기 증가로 제로 제품 출시. 아직 비중이 크지 않으나 제로 시장 확대에 따른 성장 기대됨

[밸류에이션]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3만원 유지

목표주가는 12M Fwd EPS에 기존과 동일한 목표배수 12배 적용. 동사의 해외 비중은 10% 대로 음식료 평균(13배) 대비 할인 유지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 유통채널 내 SKU를 늘려가며 성장하고 있고 해외 비중 확대에 따라 수익성 개선도 나타나고 있어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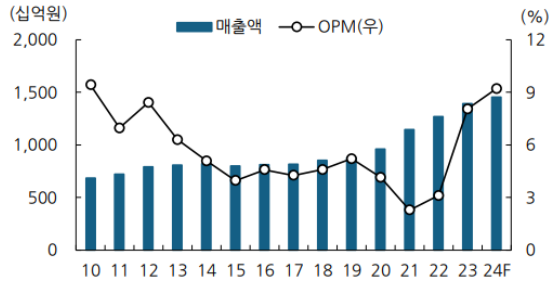
현재 주가는 24년 실적 대비 PER 8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매력 높음

#### Financial Data

(십억원)	2021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1,147	1,268	1,394	1,455	1,503
영업이익	26	39	112	134	145
영업이익률(%)	2.3	3.1	8.1	9.2	9.7
세전이익	-12	37	111	135	146
지배주주지분순이익	-19	26	86	105	113
EPS(원)	-1,962	2,905	9,751	11,896	12,793
증감률(%)	적전	흑전	235.7	22.0	7.5
ROE(%)	-3.4	4.5	14.2	15.4	14.7
PER(배)	-27.1	13.5	5.6	7.7	7.2
PBR(배)	0.9	0.7	0.8	1.2	1.1
EV/EBITDA(배)	4.5	3.3	2.4	3.5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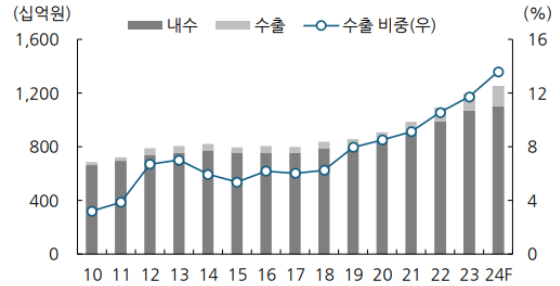
자료: 빙그레,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K-IFRS 연결기준

빙그레 연결 실적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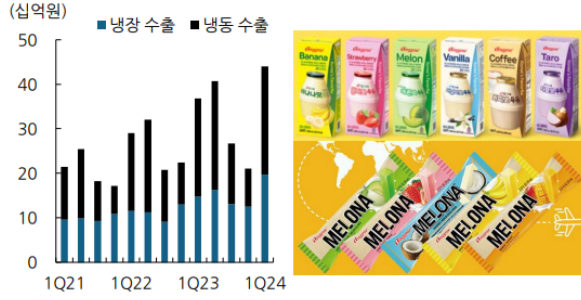
자료: 빙그레,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별도 기준 국내외 매출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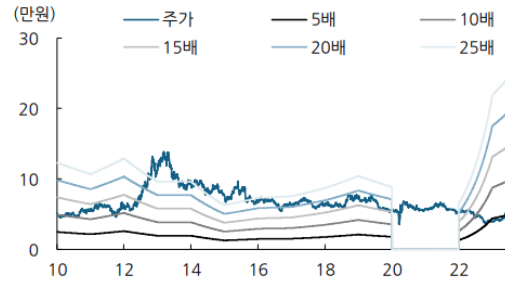
자료: 빙그레,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빙그레 수출 실적과 주요 품목



자료: 빙그레,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빙그레 PER 밴드 차트



자료: FnGuide,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롯데칠성

제로는 내가 제일 잘나가

[출처] DS투자증권 장지혜 애널리스트

[업데이트] 2분기 원부자재 비용 부담 및 내수 부진 영향으로 실적 부진 전망. 하반기 턴어라운드 기대



24년 2분기 실적은 연결 기준 매출액 1조 831억원(+36% YoY), 영업이익 563억원(-5% YoY, OPM 5.2%)  
으로 시장 기대치 하회 전망

음료는 우호적 기후에도 내수 소비 부진 영향으로 매출 성장률 둔화, 원당 등 원가와 CAPA 확대에 따른  
고정비 부담으로 수익성 또한 하락

주류는 새로 기존 제품과 신제품 새로 살구의 판매 호조, 맥주는 크러시가 기여하며 전체 매출 성장률  
+3% 대 유지. 수익성 개선 전망

필리핀 법인은 23년 4분기부터 연결로 인식되며 외형성장 견인. 3월 이후 BEP 도달하며 수익성 개선 긍정적

24년 연간 실적은 연결 기준 매출액 4조 1,200억원(+28%YoY), 영업이익 2,205억원(+5% YoY, OPM  
5.4%) 전망

[투자포인트] 제로 음료와 소주 라인업 확대로 가장 높은 제로 매출 비중 보유. 해외(별도+필리핀) 성장  
도 긍정적

1) 제로 라인업 확대: 음료는 탄산 및 기타 부문 신제품 출시, 소주도 제로 슈거 새로운 라인업 확대로 제  
로 매출 성장

제로 음료 라인업 매출은 21년 875억원→23년 2,730억원 →24년 3,000억원으로 성장하며 음료(별도) 매  
출의 15%로 확대 전망

2) 해외 매출 확대: 필리핀 법인은 +10%대 외형성장 중이며 향후 밀키스 등 자체 음료 현지생산 기대.  
소주 새로운 수출 확대도 긍정적

[밸류에이션]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2만원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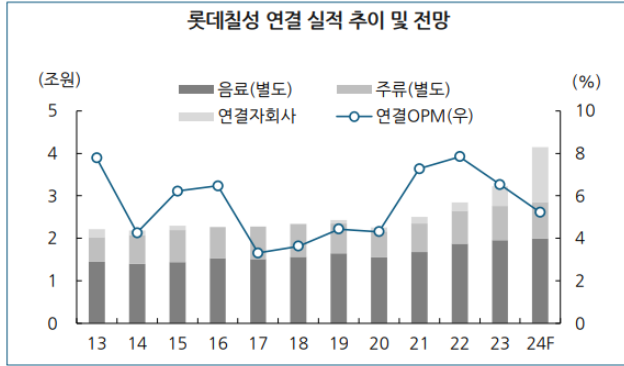
목표주가는 12M Fwd EPS에 기존과 동일한 목표배수 12배 적용. 현재 주가는 24년 실적 대비 PER 9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매력 높음

23년~24년 상반기까지 수익성 하락하며 저평가받았으나 하반기 이후 원가 부담 완화되며 수익성 개선  
전망. 제로와 해외 모멘텀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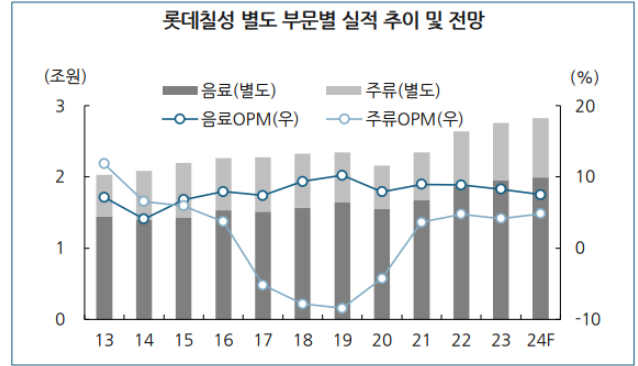
### Financial Data

(십억원)	2021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2,506	2,842	3,225	4,120	4,339
영업이익	182	223	211	220	266
영업이익률(%)	7.3	7.8	6.5	5.4	6.1
세전이익	175	169	207	171	221
지배주주지분순이익	136	128	166	144	187
EPS(원)	14,399	13,563	17,593	15,269	19,877
증감률(%)	흑전	-5.8	29.7	-13.2	30.2
ROE(%)	10.0	9.1	11.6	9.5	11.3
PER(배)	9.3	13.0	8.3	8.7	6.7
PBR(배)	0.9	1.3	1.0	0.8	0.8
EV/EBITDA(배)	7.0	7.5	7.4	6.3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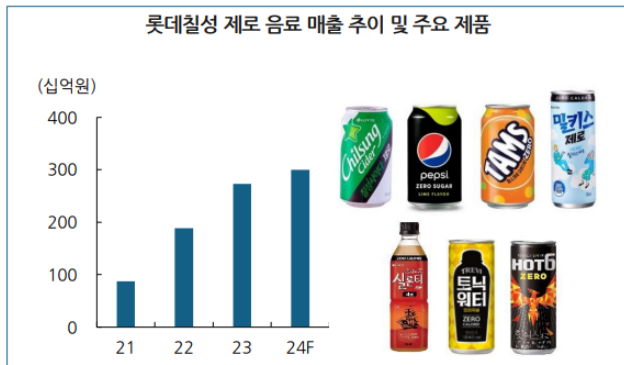
자료: 롯데칠성,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K-IFRS 연결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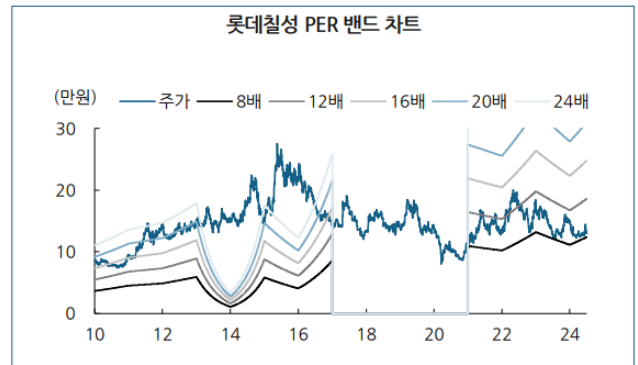
자료: 롯데칠성,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롯데칠성,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롯데칠성,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FnGuide,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SOOP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기대된다

[출처] [하나증권 이준호 애널리스트](#)

2Q24 Pre: 별풍선은 또 역대 최고

SOOP은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수익 1,092억원(+26.0%YoY, +15.0%QoQ), 영업이익 332억원(+40.4%YoY, +15.7%QoQ, OPM 30.4%)를 기록하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요인은 기부경제선물(별풍선) 매출의 증가다. 2분기 별풍선 매출은 823억원(+31.2%YoY, +8.2%QoQ)으로 또한 번 역대 최대치를 갱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광고 매출은 224억원(+12.3%YoY, +47.4%QoQ)으로 전망한다. 지난해 3분기 인수한 디지털마케팅 CTTD의 연결 반영 효과가 반영되었다. 아프리카TV(국내 서비스명)는 국내 라이브 스트리밍 1위 플랫폼의 위치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평균 시청자 수가 소폭 벌어지고 있어 연내 이러한 추세는 유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2분기까지는 광고 경기의 부진으로 인해 증가한 트래픽과 광고 매출이 비례하지 않는 구조가 예상된다. 하반기 본격적인 버추얼 스트리머의 콘텐츠 광고 기여가 성장의 동력이 될 전망이다.

광고 매출 반등과 글로벌 SOOP 동시 송출은 아직

SOOP은 2024년 연결 기준 영업수익 4,388억원(+26.2%YoY), 영업이익 1,283억원(+42.0%YoY, OPM 29.2%)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플랫폼 서비스 매출은 3,366억원(+30.0%YoY)으로 예상하며 별풍선 매출은 3,263억원(+30.9%YoY)으로 추정한다. 2분기 기대 이상의 별풍선 매출과 증가 추이를 반영하여 상향 조정했다. 광고 매출은 947억원(+14.3%YoY)으로 전망한다. 주요 광고주인 게임사들의 마케팅 비용 감축을 반영하여 소폭하향 조정했다. 하반기 업황에 따라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6월 5일 글로벌 SOOP을 출시했고 현지 스트리머들을 영입해 서비스 안정화 작업중이다. 엠베서더 스트리머들의 순차적 동시 송출이 글로벌 SOOP의 향후 트래픽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이벤트다. 다만 엠베서더 스트리머로 공개된 페이커 선수(LOL, T1)를 비롯한 리그오브레전드 선수들이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 라이브 스트리밍을 중단한 상황으로, 이들의 동시 송출은 해당 이슈가 해결되기 전까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투자의견 Buy 및 목표주가 165,000원으로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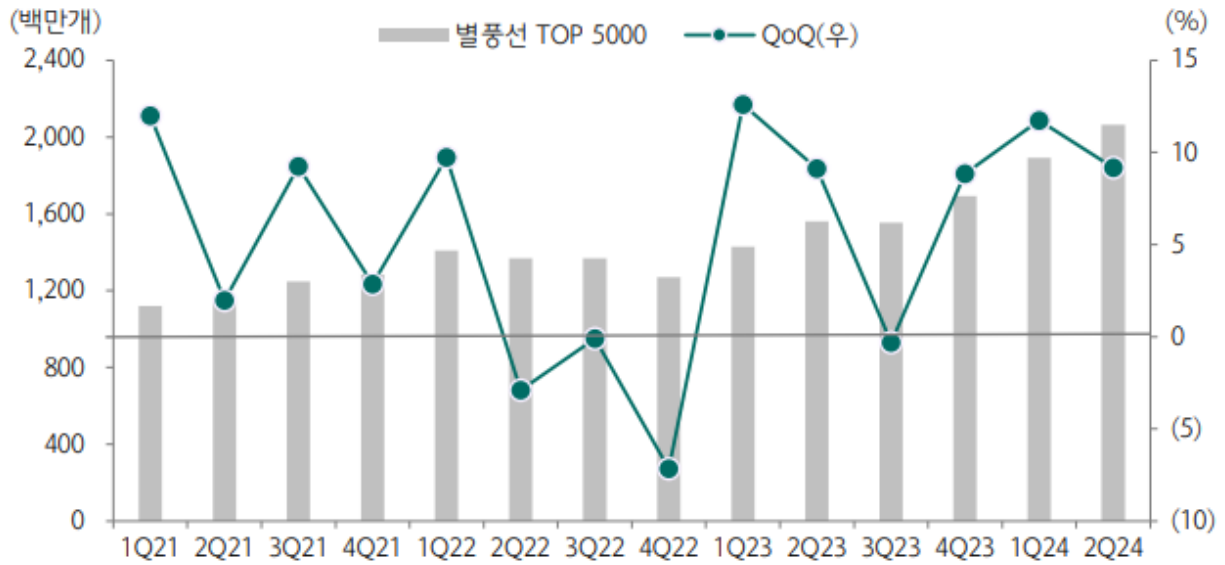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165,000원으로 상향한다. 플랫폼 매출 추정 변경 인한 EPS 예상치 상향 조정이 요인이다. EPS의 증가세는 고무적이나 멀티플 리레이팅을 위해서는 1) 트래픽에 비례하는 광고 매출의 성장, 2) 글로벌 SOOP의 성과가 확인되어야 한다. 3분기 예정된 국내 아프리카TV의 SOOP 리브랜딩 효과와 하반기 광고 경기의 회복, 글로벌 SOOP 동시 송출로 가시화되길 기대한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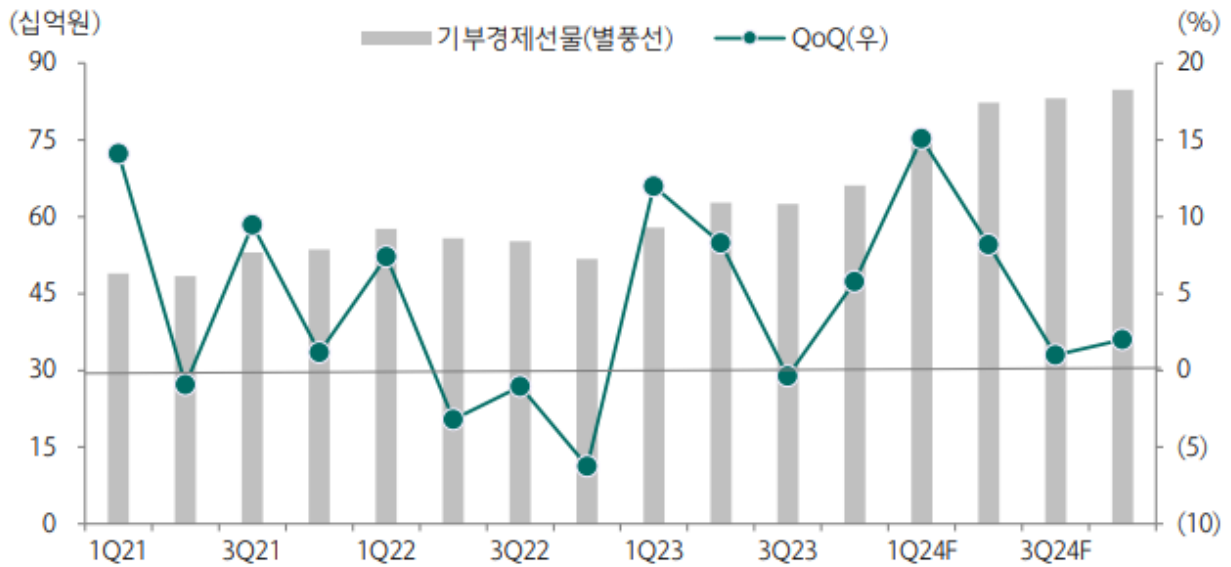
투자지표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315.0	347.6	438.8	476.9
영업이익	82.4	90.3	128.1	144.7
세전이익	82.6	96.1	131.0	149.2
순이익	59.7	74.6	101.4	115.1
EPS	5,197	6,489	8,825	10,012
증감률	(15.89)	24.86	36.00	13.45
PER	13.68	13.19	15.52	13.68
PBR	3.05	2.94	3.68	2.95
EV/EBITDA	5.48	5.79	6.20	4.99
ROE	26.52	28.02	30.44	26.87
BPS	23,321	29,091	37,197	46,420
DPS	730	850	850	850

도표 4. 별풍선 Top 5000 합계 추이



자료: 풍투데이, 하나증권

도표 5. 기부경제선물(별풍선) 매출 추이



자료: SOOP, 하나증권



LG생활건강

낮은 기대와 낮은 주가

[출처] 상상인증권 김혜미 애널리스트

2Q24E 매출액 yoy -1.0%, 영업이익 yoy -3.5% 전망

LG생활건강의 2Q24 연결 실적으로 매출액 1조7,888억원, 영업이익 1,523억원을 예상한다. 부문별로, 1) 화장품은 매출액 yoy -3%, 영업이익 yoy -1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반적인 인바운드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B2B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면세점 매출은 qoq 성장(+17%), yoy 감소(-17%)로 추정하였다. 중국 현지 매출의 경우, 상반기 주요 온라인 이벤트인 6/18 영향으로 qoq 소폭 증가, yoy 10% 초반의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생활용품은 매출액 yoy -2%, 영업이익 yoy +13% 성장을 전망한다. 쿠팡 재개 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각종 행사 등을 통한 온라인 채널의 성장세는 가속화 중이나, 전년동기 북미 구조조정에 따른 베이스 차이로 외형은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 다만, 프리미엄 브랜드 육성 전략에 따라 믹스가 개선되어 수익성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3) 음료의 경우, 매출액 yoy +2%, 영업이익 yoy -3%를 예상한다. 탄산 경쟁 심화 및 오프라인 유통 채널 부진 영향에 따른 원가 부담 증가에도 판가 전가가 이뤄지지 않아 수익성은 하락할 전망이다.

투자의견 BUY 및 목표주가 530,000원 유지

1Q24 실적 발표와 함께 반등을 시도하던 동사의 주가는 최근 다시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계속해서 비중국 확대 모멘텀이 화장품 관련주들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파악된다. 전분기와 유사한 분위기 아래 동사의 2Q24 실적 기대감은 크지 않은 상황이며, 현재 낮은 수준의 주가를 고려한다면 작은 호재에도 상승 반전세가 촉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전년도 하반기 구조조정에 따른 낮은 기저를 감안할 시 하반기에는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만큼, 관심 제고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판단이다

#### Financial Data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PER (배)	EV/EBITDA (배)	PBR (배)	ROE (%)	배당수익률 (%)
2022	7,186	711	237	14,604	49.4	11.9	2.4	4.4	0.6
2023	6,805	487	143	8,664	41.0	7.3	1.2	2.7	1.0
2024E	7,052	590	379	25,336	13.6	5.9	1.1	6.8	1.0
2025E	7,471	703	458	30,728	11.2	4.8	1.0	7.8	1.0
2026E	7,833	732	478	32,109	10.8	4.2	0.9	7.6	1.0

자료 : K-IFRS연결기준,상상인증권





키움증권  
 13만원의 벽을 넘어가기

[출처] 키움증권 유틸리티 애널리스트

밸류업 vs RCPS

키움증권 주가 전고점은 증권업 호황이었던 코로나19 시기. 이후 여러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매년 높아지는 리테일 가치, 성장주와 배당주 특징 겸비에 대해 프리미엄 부여받음. 다만 4,000억원의 RCPS가 캡으로 작용해 주가는 13만원에 머무는 중. 이번 밸류업 모멘텀은 재무적 부담 해소가능한 기회라고 판단.

과거 코로나19 당시 RCPS 3,552억원 소화한 경험 있음

정부는 세제지원 추진 등 밸류업 활성화에 적극적이며 동사도 밸류업 1호 공시자로서 주주가치제고 의지 강함. 별도 환원율 30% 이상, PBR 1배 이상, 3개년 평균 ROE 15%, 자사주 소각을 목표. 환원율 내 배당과 자사주 비율은 조만간 파악가능할 것으로 추측. DPS로만 가정해도 증가 기준 6%대 수익률

2분기 실적도 시장 컨센서스 상회 추정

2Q24 연결 지배순익 2,081억원(+56.1% y-y, -15.2% q-q) 컨센 상회 예상

트레이딩/기타: PI 부문 반도체 업종 투자수익 양호한 것으로 파악. 증권의 PF 손실인식은 제한적이나 보유 저축은행들의 총당금 적립은 지속

브로커리지: 국내주식 개인 M/S 30%대로 1위 유지. 해외주식 M/S 1위이지만 5월 토스의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며 격차 축소.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필요

IB: 1분기 GS건설 송도개발 2,500억원에 이어 2분기도 포스코이앤씨의 신길5동 개발에 2,600억원 참여. 우량 대형 딜 위주로 참여 중

	2023	2024E	2025F	2026F
순영업수익	1,160	1,732	1,849	1,999
판관비	595	655	731	814
판관비율	51.3	37.8	39.5	40.7
영업이익	565	1,077	1,118	1,185
지배순이익	436	786	819	865
증감률	-14.0	80.1	4.3	5.6
EPS	15,892	29,364	31,206	32,945
PER	6.3	4.3	4.0	3.8
PBR	0.6	0.6	0.5	0.5
ROA	0.9	1.5	1.4	1.4
ROE	9.3	15.1	14.0	13.3
DPS	3,000	8,000	8,000	8,000
배당성향	20.2	25.7	24.7	23.4

단위: 십억원, %, 원, 배

